

# 전북대 '천원의 아침밥' 전국 우수사례

### 학생 식단 질적·양적 지원 규모 대폭 확대... 내년 3만2500여명 지원 대학·지자체·정부 협력모델... 대표 학생 복지 프로그램 자리매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운영 중인 '천원의 아침밥'이 전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

육문화정보원은 최근 전국 참여대학 20여개 교 중 전북대를 비롯한 14개 대학을 우수사례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

기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으

로, 올해는 3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119일 간 운영됐다.

방학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생활협동조합 후생관에서 제공되며,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대는 사업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 대학 자체 지원금을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했고, 식수 인원도 지난해 2만4,000명에서 올해 3만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5,000원이었던 1식 단가를 올해 6,000원으로 인상해 식단의 품질도 크게 향상시켰다.

현재 '천원의 아침밥'에는 농림축산식품부 2,000원, 전북대 및 전주시 1,000원, 전북대학교 2,000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 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전북대는 내년에도 학생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해 일일 식수 인원 250명, 총 130일 운영으로 총 3만 2,500명 규모의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천원의 아침밥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전북대의 대표 학생 복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우수사례 대학 선정에 걸맞게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든든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학교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운영 중인 '천원의 아침밥'이 전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사진은 최근 열린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 시상식

## 전통예술, 젊은이들의 언어로

### 국립군산대, 판소리·창극 디지털 콘텐츠 8종 공개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18일 전북 청년의 시각에서 판소리·창극을 재해석한 디지털 콘텐츠 8종을 완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 8종은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KSNU Insight+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결과물로, 전북 전통예술을 '지금의 언어'로 해석해 청년층과의 문화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지역 문화정책과 대학 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청년 참여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통예술의 난해함을 낮추고 청년들의 문화 소비 방식에 맞춘 형식으로 구성된 디지털 콘텐츠는 △춘향가·심청가·흥보가 등 대표 판소리를 청년에게 친숙한 서사 중심으로 재구성한 카드뉴스 3종, 판소리의 기본 구조 장단 체계, 구성 요소(창·아리·발림 등)를 시각적 흐름도로 정리한 인포그래픽 3종, △전북 지역에 분포한 판소리·창극 관련 장소를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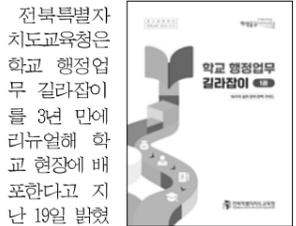
도 기반으로 정리해 청년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 공간과 연결한 지도형 콘텐츠 1종, △판소리 대목 가운데 감정이 뚜렷하고 청년층이 흥미를 느낄 만한 부분을 선곡해 소개하는 큐레이션 콘텐츠 1종이다.

이번 콘텐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청년이 전통예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데이터를 제공하며, 자신의 언어로 전통예술을 재해석하는 방식을 시도해 전통예술이 젊은 세대와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콘텐츠 제작을 지도한 국립군산대 행정학과 전영욱 교수는 "이번 결과물은 전통예술이 청년 세대와 연결되는 방식에 중요한 힌트를 제공한다"며 "전북이 보유한 문화 자원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고 전했다. /문수=김만호 기자

## 학교행정업무 길라잡이 개정

### 전북교육청, '학교 폐지·통폐합' 추가해 19편으로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행정업무 길라잡이를 3년 만에 리뉴얼해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학교 행정업무 길라잡이는 복무와 물품관리, 예결산, 계약 등 학교의 행정업무 전반을 알기 쉽고 이용하기 편하게 제작된 설명서다.

전북교육청은 2022년에 배포된 길라잡이를 토대로 법령 개정과 교육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내용을 정비하고 학교 폐지 및 통폐합업무 등을 추가해 총 19개 분야로 확대·발간했다.

학교 행정업무 길라잡이는 △행정업무관리 및 보안 △복무 △물품관리 등을 담은 1권과 △학교회계 예·결산 △학교회계 계약 △학교 폐지 및 통폐

합 등을 담은 2권으로 제작됐다. 특히 개정과 발간을 위해 15명으로 구성된 행정연구회 회원들은 지난 2~10월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반영하고, 신규 업무담당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각 분야별 첫 장에 미리보기와 핵심 요약 기능을 삽입해 편리성을 더하고 기존 서술식 자료를 도표 등으로 개선해 가독성을 높이고자 했다.

전북교육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책자를 연말까지 배포할 계획이다. 또, 도교육청 누리집에도 탑재해 업무담당자가 언제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주 행정과장은 "리뉴얼된 학교 행정업무 길라잡이가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지역 강소기업과 배터리 실무교육 본격 시행

### 전북대, 에너테크인터네셔널과 협력... '전북형 워털루 코업 프로그램' 운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원장 오상목)이 국립대 최초로 도입한 학연교수제를 통해 설립한 JBNU-KIST 산학연융합학과가 지역 강소기업인 에너테크인터네셔널(주)(대표 신상기)와 협력해 산학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전북대는 JBNU-KIST 산학연융합학과(학과장 이승희 교수)가 에너테크인터네셔널(주)와 손잡고 현장 중심 교육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 학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출연연장벽 허물기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과 연계

한 현장 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JBNU-KIST 산학연융합학과는 그동안 기업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해 12월 비너스(주)와 협약을 체결해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를 추진한 데 이어, 올해 9월 에너테크인터네셔널(주)에 이어 이번에 에너테크인터네셔널(주)을 신규 참여 기업으로 맞이했다.

이번 협력은 '전북형 워털루 코업(Co-Operative Educatio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워털루대의 대표적인 실무 인재 양성 모델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재설계한 현장 실습 지원 사업으로, 학기 중에는 대학에서 이론 수업을 이수하고 방학 중에는 기업 현장에서 실습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공 지식과 실무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

에너테크인터네셔널(주)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비롯해 실리콘 음극재,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 온 전문 기업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전북대는 대학원생들에게 현장실습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학생들의 신기술 습득과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JBNU-KIST 산학연융합학과와 에너테크인터네셔널(주)은 최근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JBNU-KIST 산학연융합학과 이메일(jmkist@jnu.ac.kr)을 통해 문의 및 지원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전북교육청, 학교감염병 관리 위기소통 협의체 회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창조나래 3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학교 감염병 관리 위기소통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학교 감염병 관리 위기소통 협의체 위원과 도교육청 업무담당자가 참석해 2025년 학생 감염병 발생 현황과 예방·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먼저 전북교육청은 △학교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및 발생 즉시 보고 체계 운영 △학교 감염병 대응 지침 안내 및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 △학교 구성원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및 위기대응 안내 강화 등을 올해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의 주요 성과로 발표했다.

전북 감염병관리지원단은 학교 감염병 발생 현황 분석,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안내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간 예방접종 연계와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2026년 학교 감염병 대비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및 유관기관 간 위기소통 및 협조 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재훈 기자

## 장수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학부모 대상 소통 간담회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근)은 지난 18일, 관내 학교운동부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운동부 학부모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운동부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학생 수가 적은 환경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학생 관리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선수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청렴한 학교운동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과 주요 내용 △학부모 및 학생과 관련한 청탁 금지법 질의·응답 사례 △소규모 학교운동부 운영 여건을 고려한 불법 찬조금 근절 제도와 개선 방안 △학교운동부 운영 전반에 대한 학부모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문수=고관호 기자

## 전주대, 2026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참가

### 1:1 맞춤 상담 제공 29~31일 원서접수 단과대학 통합선발 융합형 인재 양성



전주대학교가 지난 18일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26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참가해 우수 인재 유치에 나섰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가 지난 18일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26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참가해 우수 인재 유치에 나섰다.

이번 박람회에서 전주대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1:1 맞춤형 입학 상담 △학사 및 장학제도 안내 △교과 인프라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상담 부스에서는 대학 브랜드 굿즈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수험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주대는 이번 정시모집에서 총 90명(가군 16명, 나군 18명, 다군 56명)

을 정원 내로 선발하며 정원 외 특별전형은 수시 미충원 인원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총 3일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정시모집에서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부분의 모집단위를 단과대학 통합선발 방식으로 모집하여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넓히고 학문 간 경계를 허무는 교육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전주대, 전북자치도와 '전북 방위산업 발전 세미나'

전북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방위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의 장이 열렸다.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지난 18일 교내 온누리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 주최한 '2025 전북 방위산

업 발전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특히 태국 국방과학연구소 Dr. Chamam 소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북 방위산업 기술력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국제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인공지능) △드론·로봇 융합 기술 △물류형 시뮬레이션 등 첨단 국방과 학기술을 지역 산업에 접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발표자들은 전장 환경을 재현하는 시뮬레이션 기술과 드론 전력화 등 구체적인 기술 사례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전북 특화형 방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훈 기자

AI(인공지능) △드론·로봇 융합 기술 △물류형 시뮬레이션 등 첨단 국방과 학기술을 지역 산업에 접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발표자들은 전장 환경을 재현하는 시뮬레이션 기술과 드론 전력화 등 구체적인 기술 사례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전북 특화형 방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훈 기자

## 올 2차 장학생에 장학금 지급

### 전북교육청 사랑의장학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랑의장학회(이하 사랑의장학회)는 2025년 2차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장학생은 도내 중·고·특수학교 학생 673명으로, 총 2억 9,600여만원 규모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장학금은 사랑의장학회에 기탁된 후원금과 교육청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됐으며, 특히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각계각층의 기탁금도 포함돼 의미를 더했다. 장학생 선발은 △학업우수 △학교장

추천으로 나누며, 중·고·특수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발했다.

1인당 지급액은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특수교육대상학생 40만원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전북기계공업고 3학년 김문찬 학생은 감사 편지를 통해 "이번에 받은 장학금은 학업과 진로 준비에 사용하려고 한다"며 "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같은 학교 1학년 정민준 학생은 "평소 애자주 소꿉친구였던 요양시설과 노인 복지시설의 어르신 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올 한해 환경교육 실천 사례 공유

### 전북교육청, 탄소중립실천중점학교 성과공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오후 2시 비전대학교 행복가족사 비전컨벤션홀에서 '2025학년도 탄소중립실천중점학교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학교 환경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급) 담당교사들과 환경교육 교육혁신공동체 교사들이 참여해 교육 현장에서 실

천해 온 우수한 환경교육 사례를 나누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 77개교, 학급 50개를 운영하며 학교 현장의 탄소중립 실천 노력을 지원해왔다.

'환경도시와의 만남'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KBS '걸어서 세계속으로' 등을 제작한 김기람 PD가 감사로 나서,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다. /김재훈 기자